

이웃종교 RELIGION

“종교문화관광은 전략상품”

한국종교언론인협, 제13회 종교언론인 세미나

한국종교평화를 지키는 각 종교언론인들이 상호 이해와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제주도에 모였다.



한국종교언론인협이 주최한 '제13회 종교언론인 세미나'의 일정으로 이기풍선교원(기독교)과 약천사(불교) 등 4대 종단 성지를 방문하며 종교간 이해의 폭을 넓혔다.

한국종교언론인협의 회장(대표의장 정춘식, 밀교신문 편집국장)은 11월 28-29일 제주도에 '제13회 종교언론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춘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자원 대부분이 종교문화라는 것을 감안해 이번 심포지엄 주제를 ‘한국 종교의 문화 관광자원 활용현황과 종교언론의 역할’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서 최규창 기독교신문 편집국장은 “종교문화관광은 포교효과와 이미지 개선, 수익 창출 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전략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장은 “불교의 템플스테이는 질투심을 유발시킬 만큼 성공적이다”며 “기독교도 정신수련과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무형의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안지수 불교신문 차장은 “지역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한국적 매력을 알리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휴가’라는 측면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9% 이상이 템플스테이가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차장은 ‘템플스테이를 보완·발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전문가, 종교기관 등의 밀착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불교 신문의 채일택 기자는 “원불교 교단 내 문화관광사업의 인식부족”을 문제제기 하며 “문화관광 관련 집중 보도를 통한 여론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상덕 가톨릭신문사 기획특집팀장은 “천주교의 관광사목은 ‘외화내린(外華內養, 겉으로 화려하지만 실속없음)’으로 진단하며 언론이 구심점이 되어 집단 네트워크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종교신문인인협 의회는 종교 갈등 완화와 종교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1998년 4월 창립했다.

백성주 기자

‘마음치유’로 불교사회복지 확립

조계종 복지재단, 4일 ‘2009 불교 자비나눔 대축제’ 봉행

불교사회복지 전문가가 하나된 자리,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승)은 12월 4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 2009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를 개최했다.

1, 2부로 나뉘어진 행사는 전국의 불교사회복지계 종사자 1000여 명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됐다.

제1부 불교사회복지포럼에서는 ‘불교사회복지와 마음치유’라는 주제로 불교 최대 유산으로 손꼽히는 정신적 가치(마음치유)를 사회복지에 담아내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전문성·독자성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서광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교수)은 ‘불교사회복지와 마음치유’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선 심리치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서광 스님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 자신의 자기치료를부터 출발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업무를 통해서 부정적, 또는 비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자신의 핵심감정

에 대한 알아차림 능력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해방되면 보다 효율적 방식으로 대상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초기불교 입장에서 본 마음치유-불교사회복지의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행·불행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라고 수용하는 자세와 현재의 나의 행위가 미래의 행·불행을 결정한다는 인과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추는 것이 불교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부에는 2009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자비나눔 실천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비나눔 실천가들을 발굴·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총회위원장 보선 스님, 포교원장 혜중 스님, 조계종 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전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민주당 김리당 최고위원 등 내빈들을 비롯해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지난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 한국불교는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마다 민심을 이끄는 구심점이 돼 우리나라



전국 불교계사회복지 현장가들이 결집한 ‘불교 자비나눔 대축제’가 열려 1000여 사부대중이 화합·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백재원 기자

를 지켜냈다. 이제는 불교계 사회복지사들이 동태대비 정신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실천의지로 현장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보각 스님(자제공덕회 이사장), 진오 스님(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지거 스님(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이미성기획실장(진각복지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복지시설단체운영부 △불교사회복지발전공헌부 △자원봉사활동부 △특별상 등으로 나뉘어 이동락 극락마을원장, 박왕호 용인노인요

양원 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사회복지현장가들이 수상했다.

진오 스님은 “지난 11년간 구미지역에 불교 사회복지를 뿌리내리려 한다는 신념으로 활동해왔다. 이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며 초심으로 돌아가 복지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 부속행사로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다문화사업을 소개하는 다문화특별관과 △전통문화체험관 △자비나눔사진전(우수복지사업 사진전시) 등이 운영됐으며 오느름극악관련악단과 대한불교 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나은 기자

가톨릭 새해 첫날 ‘대림’ 있는 달

‘대림환’ ‘성탄 구유’ 성탄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

연중 마지막인 12월은 천주교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라 분주하다. 교회 달력(전례력)의 시작인 대림(待臨)시기가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에서 ‘대림’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하는 남이시면서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 구원의 완성에 대한 기다림이다. 가톨릭의 새해 첫날인 대림제1주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 일요일(올해는 11월 29일)이다.

대림의 정신은 속죄와 가난으로 요약된다. 예수를 본받는 속죄

와 가난의 정신은 신자들의 신앙 실천뿐 아니라 교회 장식으로도 표현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림환’과 ‘성탄 구유’로 성탄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다.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은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의 대림시기와 함께 새로운 1년을 맞이한다. 특히 한국의 천주교인들은 이때 고해성사와 피정을 통해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한다. 이 때문에 대림시기 각 지역 성당에는 고해소 앞에 길게 줄을 선 신자들의 행렬을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성탄을 앞

둔 12월은 자아성찰과 회개의 의미가 더 각별하다. 그래서 전국 성당과 수도회, 피정의 집에서는 고해성사(판공), 연말피정 등 다양한 신앙제철을 마련하고 있다.

공로를 판별한다는 뜻에서 ‘판공(辦功)’이라고도 하는 고해성사 의무는 원칙적으로 연 1회 부활시기를 앞두고 부과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을 복돋운다는 취지에서 성탄시기 전에 또 한번 판공을 실시한다. 춘천교구 김현준 신부(임당동성당 주임)는 “판공은 신자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영혼의 정기검진”이라고 설명한다.

이나은 기자

“긍정적으로 노년준비해야 건강”

서울노인취업훈련센터 어르신 재취업 특강

“갑사하고 미안해하고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분명 달라집니다.” 서울노인취업훈련센터(관장 가섭)는 12월 2일 불교역사기념관에서 재취업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남석인 교수(한국디지털 대학)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특강은 고령화 사회에서 갖는 고령자 재취업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인식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마련됐다.

특강에 앞서 가섭 스님은 “자원봉사를 활용한 여가활동과, 재취업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요건이 된다”며 “옛날의 내 모습을 버리고 하심(下心)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무슨 재취업이나’ 하는 부정

적 생각은 버리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할 때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고령화 시대, 제2의 인생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새롭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Thanks) 과거에 집착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일방적 소통을 해왔던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사과를 하고(Sorry) 계획을 세워 즐기면(Love) 어르신 스스로 인생의 중심이 돼 분명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센터는 국민·퇴직·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2009년 노인복지정책 및 복지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했다. (02)6911-9585 이나은 기자

“생명 살리는 진정한 생명나눔”

생명나눔 광동고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교육

한 달이 지나면 골 성인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을 홍보하는 자리가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는 12월 1일 남양주 광동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3학년 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소통, 참다운 나눔’을 주제로 실시하는 5개영역 사업 중 하나인 ‘대중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홍보에 앞서 일민 스님은 “앞으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될 고3 학생들에게 조혈모세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조혈모세

포 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서동희 랩지노믹스임상검사센터 원장은 “골수조혈모세포를 주제로 조혈모세포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나눔’이라며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의 인식변화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은 정성훈 긍정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웃음과 긍정’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웃음의 중요성과 긍정적 마인드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배우는 자리를 가졌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공고 제2009-4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

2009. 3. 10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본위원회 공고 제2009-3호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공고」 중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09. 9. 18.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

2009. 9. 18. ~ 2010. 3. 17.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 10·27법난의 정의

“10·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교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나.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3. 신청인의 자격

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이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나. 명예회복 신청: 피해자, 유족(사망시), 피해종교단체, 대리인

4. 신청서 접수기관

가. 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정기념관 내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09:00~18:00 한 합니다), 이를 주소를 수신으로 한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간 내에 도달해야 합니다).

나. 주소: 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정기념사업회 439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5. 신청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및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및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각 1부(명예회복신청서와 의료지원금신청서 사식이 구별됨을 유의) 나. 피해경위서 1부(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 각 1부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위임장 1부 이면,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등 시행령 제8조제2항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더함.

6. 의료지원금 신청기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산정

7. 심의·결정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사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사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사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T. 02 - 748 - 5555)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10·27법난피해자신청접수안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알림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신청공고 바로가기」 등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아. 낙태아(수자령) 영가 49일 특별 천도재

1. 아무리 어려워도 유산아(수자령) 영가 천도만은 꼭 해 줘야,

유산아(태아령)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태중에서 죽은 것이기에 이상의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크다. 그런 태아령은 빨리 삼도천(三渡川)을 건너서 불계(佛界)에 가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공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천도해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쌓여진다.

비록 이름 없고 세상에 햇빛을 보지 못한 낙태아, 사산아일지라도 불교적 생명관으로 볼 때 그들은 분명한 생명체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지성으로 천도하고 영혼을 달래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생자장도량 철원 심원사에서는 유산아(수자령) 영가만을 위한 특별(유산아수자령영가만단종) 천도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다 같이 동참하시어 이 세상 빛과 이름을 갖지 못한 우리의 수자령 영가님에게 불명(이름)을 지어 주고 속세의 한없는 미련을 떨치고 서방정토에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천도공양에 두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유산아. 낙태아(수자령) 영가 특별 천도재 일정

Table with 2 columns: Day/Time and Details. Includes dates from 2009.12.20 to 2010.2.7.

- ◆ 행사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철야 기도 합니다.
◆ 기도 동참금: 한 가족당 동참금 기본 7만원 + 수자령 영가 1위 마다 2만원씩 추가
◆ 입금계좌: 농협 238-01-119000 / 국민은행 324501-04-042961 [예금주: 심원사]
◆ 차량문의: 하나관광 광 목 기사 011-263-7809 하나관광 사무소전화: 02)395-7781 (왕복 13,000원)
: 행사기간 중 조계사 앞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전 7시 차량운행 합니다. 미리 예약 바랍니다.
◆ 자세한 것은 중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전화 033)455-5882, 455-3468 / 팩스 033)455-0419

대한불교조계종 철원 심원사 주지 정현 합장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72번지